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검역주권 수호, 대운하 건설 반대 등 6개 항 결의

부처님오신날 전북지역 연등축제에 모인 불자들이 생명과 자연 환경 보전, 전통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최근 범사회적 이슈인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등 6개항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5월 10일 전북지역 연등축제에서 무여 스님(귀신사), 대명 스님(단암사), 이근재 총동문화장(화엄불교대학), 허자연 총무(보리수합창단)는 사부대중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전북 불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축산 농가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 수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제2의 송례문 소실 사태를 막기 위한 문화재 관련 예산 증액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 수립 ▲

새만금 간척지를 친환경적인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살상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를 KBS 등 방송사에는 ▲전북도민의 영산인 모악산 정상에 송신탑 및 방송시설을 즉각 철거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불자들은 나와 이웃, 인류사회와 자연이 하나임을 알아 수행 속에 지혜를 얻고 나눔과 보시를 통해 자비행을 생활화 할 것과 지구촌 빈민국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류공생에 기여하며 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사회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월 1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과 영화의 거리일원 등 전북도내 곳곳에서는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또 12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전북 불자들이 ‘뿔’ 났다



사부대중을 대표해 귀신사 무여 스님, 단암사 대명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화장, 허자연 보리수합창단 총무(오른쪽부터)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계 금산사(주지 원행), 완주 송광(주지 회일) 등 도내 각 사찰에서(주지 도영),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등 도내 각 사찰에서 법요식과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백남용 단장

“포교사는 수행·포교·사회봉사자”

어디든 필요하면 달려가는 큰 일꾼 “부모부터 신행해야 자녀도 귀의”



“포교사는 생활 속에서 수행과 포교, 사회봉사를 하는 불교지도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이하 광주포교사단) 단장을 맡은 백남용 단장(사진)을 만났다.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불교회관 사무실에는 휴일임에도 많은 포교사들이 나와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주포교사단 등록 회원은 183명, 이 중 100여명이 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포교사는 종단소속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 고시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불자를 말한다. 포교사의 활동은 군부대포교, 교도소, 장의염불, 사찰안내, 어린이 포교 등 전부분에 각 팀별로 소속된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런 부처님오신날 광주포교사단의 포교활동은 더욱 더 빛을 발했다. 봉축장엄법 점등식에 앞서 80여명의 포교사단원들이 3보 1배를 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했고, 빛고를 연등축제에서 진행요원을 맡아 5000여명의 불자들이 원만히 행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남용 단장은 “포교사 중 팀장 이상은 특히 불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포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단 하루라도 함께 쫓겨간 해보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다 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백남용 단장은 “아마 다른 포교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직장생활과 포교활동, 그리고 불교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웃었다.

교도소 포교는 김인수, 이재연 포교사 등이 주축으로 팀을 이뤄 활동 중이다. 광주교도소, 고령정 보육교(옛 소년원) 등에 매일 정기적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포교사단의 포교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장의염불, 장의

염불 봉사는 부모나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포교사단으로 연락하면 장례식장을 찾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염불봉사를 맡는다. 광주포교사단에서는 항상 5명의 포교사들이 항상 대기해 언제 누구라도 전화만 하면 달려가 염불 봉사를 한다.

이런 부처님오신날 광주포교사단의 포교활동은 더욱 더 빛을 발했다. 봉축장엄법 점등식에 앞서 80여명의 포교사단원들이 3보 1배를 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했고, 빛고를 연등축제에서 진행요원을 맡아 5000여명의 불자들이 원만히 행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남용 단장은 “포교사 중 팀장 이상은 특히 불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포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단 하루라도 함께 쫓겨간 해보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다 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백남용 단장은 “아마 다른 포교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직장생활과 포교활동, 그리고 불교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웃었다.

백남용 단장은 “포교사 중 팀장 이상은 특히 불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포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단 하루라도 함께 쫓겨간 해보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다 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백남용 단장은 “아마 다른 포교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직장생활과 포교활동, 그리고 불교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웃었다.

백남용 단장은 “포교사 중 팀장 이상은 특히 불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포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단 하루라도 함께 쫓겨간 해보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다 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백남용 단장은 “아마 다른 포교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직장생활과 포교활동, 그리고 불교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웃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중국의 티베트 탄압 규탄 기자회견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서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앞에서 열린 티베트 탄압 규탄 대회.

“티베트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앞에서 티베트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장)과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등 불교계인사와 인권단체들이 동참했다.

행법 스님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중국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으로 25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5000여명이 구금됐다”면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1980년 5월의 학살을 겪은 광주에서 티베트 평화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 고창읍 일대에서 아동학대 실태를 홍보하고, 학대예방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홍보자료와 동영상을 접하며 캠페인에 동참한 대다수 지역주민들

이 “아동학대 실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 처음 알았다.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캠페인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날 아동학대예방 서명운동에는 300여명이 동참해 일장지역의 단일 서명운동으로는 높은 참여율을 보

였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무공 스님은 “지역아동 학대를 더욱 전문적이고, 현실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예방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학대 신고 상담과 학대신고를 통해 고창 지역 아동복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음악, 이제는 월드뮤직으로 간다

범능 스님, 명상염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 출간

한국불교음악의 세계화와 ‘월드뮤직’을 기치로 내걸고 창작한 명상 염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와 화제다. 음반을 낸 범능 스님은 운동권 가수에서 출가해 수행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새 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범능 스님의 4번째 앨범. 독특한 가락의 불교음반을 잇달

아 발표해 온 범능 스님은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와 화제다. 음반을 낸 범능 스님은 운동권 가수에서 출가해 수행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새 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범능 스님의 4번째 앨범. 독특한 가락의 불교음반을 잇달

아 발표해 온 범능 스님은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와 화제다. 음반을 낸 범능 스님은 운동권 가수에서 출가해 수행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새 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범능 스님의 4번째 앨범. 독특한 가락의 불교음반을 잇달

자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원음에 동서양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가락을 입히고, 이 원곡을 총 3악장으로 달리 편곡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불자와 일반인들도 대다라니의 신묘한 깊이를 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범능 스님의 명상음악염불 음반은 나무아미타불(1집), 관세음보살(2집), 지장보살(3집)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 김창총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사찰,범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가빌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